

2022. 11. 10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2년 11월 10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

대기정책과장

김덕환

2133-3630

배출관리팀장

권형택

2133-3624

사진없음 ☐ 사진있음 ☒ 쪽수 : 4쪽

답 당 자

장지선

2133-3629

박종배

2133-4441

서울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447개소 집중단속·33건 적발

- 주유소, 인쇄소, 대형세탁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(VOCs) 배출사업장 점검
- 오존농도 높은 5월~10월 447개소 집중단속... 27건 적발해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
- 무허가(신고) 불법 자동차 도장시설 10개소 합동 단속해 6건 고발
- 소형 인쇄소에 VOCs 저감 시설 3대 시범 설치 및 전문가 상담 등 병행

☐ 서울시가 오존 생성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(VOCs) 배출 사업장과 무허가 도장시설 447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3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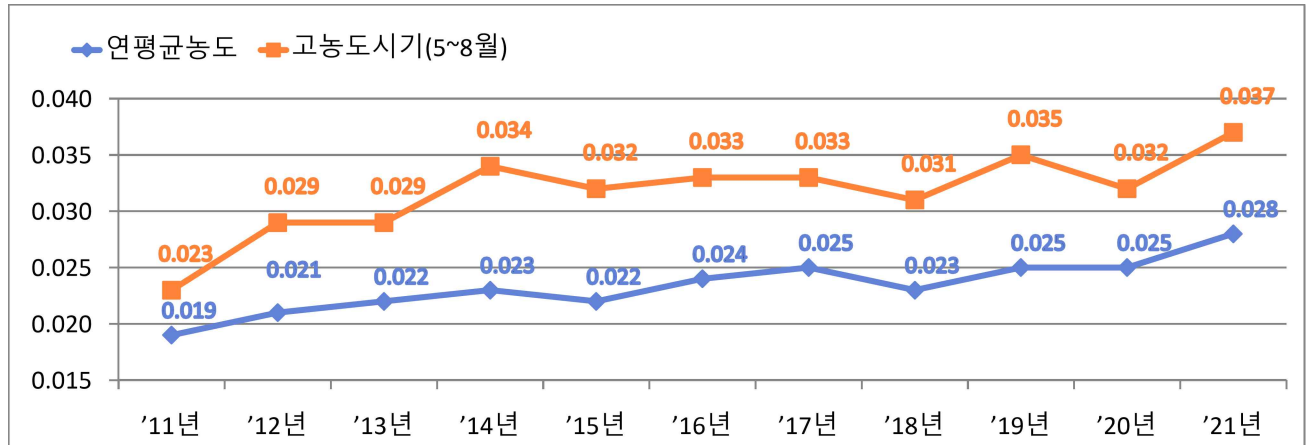
[VOCs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결과]

단속대상	점검개소	처분사항			
		계	고발	개선명령	기타
합 계	457	33	6	26	1
VOCs배출사업장	447	27	-	26	1
무허가(신고)사업장	10	6	6	-	-

☐ 오존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고 이 중 주요 생성 원인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며, 고농도 시 인체의

기관지·폐 등을 자극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최근 오존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.

[서울시 연도별 오존농도 현황]



□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과 무허가 도장시설 합동단속을 실시했다.

□ 시는 주유소, 도장시설, 대형세탁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▲ 배출시설 신고 여부, 신고내용 이상 유무 ▲ 유증기 회수시설 등 배출억제시설 설치 유무 ▲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.

□ 특히 불법 자동차 도장시설이 밀집된 성동구 지역은 시·자치구 합동 단속반 10개 조를 편성해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, 인허가 신고 없이 자동차를 불법으로 도장한 위반사업장 6개소를 고발 조치했다.

※ 합동 단속시 불법 도장행위를 하지 않은 4개소는 행정지도 조치



- 시는 단속과 함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여 '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방지시설 277개소 교체를 지원하였고, 금년에는 비규제 대상 인쇄소에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장치 3대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.



- 소형 인쇄소 26개소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를 활용해 유기용제 배출 차단을 위한 공정 컨설팅(상담)을 실시하고 사업주에게 작업 환경 개선과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의 필요성을 홍보하였다.
-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노후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오존발생을 줄일 수 있다”며 “휘발성유기화합물 사업장의 적극적인 방지시설 교체 참여와 시

민들의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 이용 금지를 당부하고,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,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